

열왕기하 6. ‘엘리사’가 있는 북이스라엘 (왕하 6 장 1-23 절)

들어가기

본 장의 전반부는 ‘엘리사’가 제자들 앞에서 행한 기적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아람의 계획을 미리 깨달은 ‘엘리사’가 저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며 북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본 장의 후반부에는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고, 아람 군대가 이때를 기회로 삼아 사마리아를 포위하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자, 그 모든 책임을 ‘엘리사’에게 돌리며 그를 죽이려고 한 북이스라엘의 왕 ‘여호람’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

1. 물에 빠진 쇠도끼를 건져낸 ‘엘리사’ (1-7 절)

1) ‘엘리사’의 제자들은 요단으로 가서 새로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고 청하였습니다. (1-4 절)

- 1 절의 ‘거주하는 곳이 좁다’는 말을 볼 때,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‘엘리사’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여들었음을 알 수 있음.
 - 참고로 ‘엘리아’와 비교해 볼 때, ‘아합’과 ‘이세벨’ 시대보다는 종교적/신앙적 자유가 많이 회복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듯...
- 특별히 이때 2 절을 주목하면, 제자들은 자신들이 요단으로 가서 ‘각각 한 재목을 가져다가’ 거처를 세우겠다고 청함!
 - ‘각각 한 재목’을 취한다는 말은 모두가 다 협력하여 선지학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것!
 - 주의 교회를 세우고, 선교 사역에 항상 함께 협력하고 힘을 보태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!
- ‘엘리사’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요청을 허락한 후, 자신도 제자들과 함께 요단으로 이주함.

2) ‘엘리사’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처소를 세울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. (5-7 절)

- 그러자 이 제자는 ‘엘리사’에게 ‘아아,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’이라며 크게 난처해 함!
 - ‘빌려온’ 에 해당하는 원어는 ‘구걸하다’라는 단어!
 - 곧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도끼를 구걸하여 빌려올 정도로 당시 저들의 상황이 가난했음을 알 수 있음.
 - 그런데 그 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니 당연히 걱정과 탄식이 나올 수 밖에 없었을 것!
- 그럼 이 같은 제자의 탄식 소리를 들은 ‘엘리사’는 어떻게 반응 하였나요?
 - ①.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을 나타냄!
 - ②.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에게 다시 그 도끼를 잡으라고 명함!
- 당황하는 제자의 실수를 무조건 탓하기 보다는 우선 문제를 해결해 준 뒤, 다시 기회를 주는 ‘엘리사’의 긍휼의 모습을 보게 됨!

2. ‘엘리사’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아람 왕의 계획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. (8-14 절)

1) 아람 왕 ‘벤하닷’은 북이스라엘을 급습하기 위해 신하들과 계약을 세웠습니다. (8-10 절)

- ‘엘리사’는 아람 왕이 세운 모든 계약을 미리 다 알고, 북이스라엘의 ‘여호람’ 왕에게 대비하도록 하였음!
 -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‘엘리사’에게 아람 왕의 모든 계약을 알게 하셨기 때문!
 -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계시해 주고 계심!
- 10 절을 보면, 이처럼 ‘엘리사’를 통해 아람의 계약이 무너진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음!

2) 그러자 아람 왕은 왕궁에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고 의심하였습니다. (11-12 절)

- 곧 아람 왕이 ‘마음’에 불안을 느끼며 왕궁에 첩자가 있다고 판단할 만큼, 하나님은 아람의 모든 계약을 정확하게 ‘엘리사’가 알도록 역사하셨다는 것!
- 이때 아람 왕의 신하 중 하나가 ‘엘리사’에 대해 보고함! (12 절)
 - ‘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’

3) 그러자 아람 왕은 즉시 군사를 보내어 당장 ‘엘리사’의 잡아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. (13-14 절)

- 참고로 그럼 당시 ‘엘리사’가 머물던 곳은? _____
 - ‘도단’은 예루살렘 북쪽 96km, 세겜에서는 북쪽으로 24km 지점에 위치한 성읍.
 - 오래 전 ‘요셉’의 형들에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김 지역.(창 37:12~28)
 - ‘이세벨’ 여왕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, ‘오바댜’가 선지자 백 명을 굴에 숨겨 구했던 지역 (왕상 18:13)
 - 오늘 본문에서 아람 군대가 ‘엘리사와 그의 종을 잡으려고 에워쌌을 때,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신 곳’
- 특별히 당시 아람 왕은 ‘엘리사’를 반드시 잡아 오기 위해서 ‘말과 병거와 수 많은 군사들’을 한밤 중에 은밀히 출정시킴!

3. 놀라운 기적으로 ‘엘리사’를 아람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(15-23 절)

1) 아침 일찍 일어난 ‘엘리사’의 사환은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‘도단’ 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. (15-17 절)

- 이때 ‘엘리사’는 어떻게 사환의 마음을 진정시켰나요?
 - ①. 우선은 ‘두려워하지 말라.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!’ 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진정시킴!
 - ②. 하나님께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함!

- 그러자 사환의 눈에 ‘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’하여 ‘엘리사’를 보호하는 모습이 보임!
 - 하나님은 오늘도 이처럼 천군,천사들을 통해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,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,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힘차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!

2) ‘엘리사’는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사들을 어떻게 대적하였나요? (18-20 절)

- ①. 하나님께 기도! -> ‘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!’ (18 절)
 - 그러자 하나님께서 ‘엘리사’의 말대로!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심!!
- ②. 직접 아람 군대로 나아가 저들을 사마리아로 유인함! (19 절)
 - ‘이는 그 길이 아니요,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, 나를 따라 오라!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,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’
- ③. 하나님께 기도! ->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,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 달라고 기도! (20 절)
 - 그때서야 아람 군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, 사마리아 한 복판에 있음을 깨닫게 됨!

3) 북이스라엘의 ‘여호람’ 왕은 ‘엘리사’에게 포로로 잡아온 아람 군인들을 죽일 것인지 물었습니다. (21-22 절)

- 특별히 이때 ‘여호람’ 왕은 ‘엘리사’를 무엇이라고 불렀나요? -> ‘_____’!
 - 아마도 ‘엘리사’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되면서,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온 고백이 아닐까?
 -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사모하자!
- ‘엘리사’는 사로잡은 군인들을 해하지 말고 음식을 먹인 후, 안전하게 돌려보내라고 답함!
- 참고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잡은 자들은 다 몰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일!
 - 신 20:13, 삼상 15:33, 왕상 20:42
- 그럼 왜 ‘엘리사’는 저들을 살려서 안전하게 돌려 보내라고 명했을까?
 -

4) ‘여호람’ 왕은 ‘엘리사’의 말대로 아람 군사들을 배불리 먹인 후,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. (23 절)

- 그 결과 아람 군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음!

4.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?

5. 중보기도 나눔